





가야산 소리길이란?

가야산 소리길은 대장경 테마파크부터 해인사까지 약 7.2km로 계곡과 소나무 숲을 걸으며 계곡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입니다.

가야산 소리길은 자연과 역사 ·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탐방할 수 있습니다.

홍류동 계곡이란?

가야산은 조선팔경 또는 해동 10승지의 하나로, 특히 소리길 입구에서 영산교까지 이르는 4km계곡은 봄에는 꽃으로 가을에는 단풍으로 계곡물을 붉게 물들인다 하여 홍류동(紅流洞)이라 불리옵니다.

홍류동 계곡을 포함한 가야산국립공원에는 식물 649종과 수달, 너구리 등을 포함한 포유류 20종, 조류 72종, 파충류 9종, 양서류 9종, 곤충 1,236종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주요 동물로는 붉은배새매, 붉은머리오목눈이, 소쩍새, 하늘다람쥐, 수달 등이 있으며, 식물로는 소나무, 노각나무, 서어나무, 산수국, 족도리풀 등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국립공원! 함께 만들어 가는 곳입니다.

- 국립공원 우리 모두가 아끼고 사랑합시다.
-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지역이며, 국민의 휴식처이자 녹색청정지역입니다.
- 그러나, 위법행위로 인한 국립공원 동 · 식물의 서식지 파괴 등 자연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 자연공원법을 준수하여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국립공원을 잘 보전하여 온전히 물려주는데 동참바랍니다.

국립공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 ▣ 지정된 탐방로가 아닌 샛길 출입하지 않기
-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하지 않기
- ▣ 야생 동식물 포획 및 채취하지 않기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원 내 쓰레기 버리지 않기
- ▣ 공원 내에서 흡연하지 않기
- ▣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야영하기



01

구간 소리길입구 ➡ 무릉교탐방지원센터
거리 2.0km
시간 40분

소리길 1구간은 대장경 테마파크에서 무릉교탐방지원센터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소리길 1구간은 도시에서 벗어나 시골길을 걷는 구간으로 아이들과 옛 농촌의 정겨운 풍경을 느끼며 함께 걸어보아요.



02

구간 무릉교탐방지원센터 ➡ 홍류문
거리 1.8km
시간 40분

소리길 2구간은 무릉교에서부터 홍류문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시골길을 지나 푸른 소나무숲이 어우러진 계곡길로 접어들면 마치 무릉도원에 들어온 듯한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소리길을 걷다 아름다운 연꽃밭을 발견하신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목어 이야기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03

구간 홍류문 ➡ 길상암
거리 1.4km
시간 25분

소리길 3구간은 홍류문에서 길상암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고운 최치원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과거로 떠나보는 구간으로 아름다운 홍류동 계곡의 시원한 물소리와 새소리 바람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3구간 곳곳에서 최치원 선생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04

구간 길상암 ➡ 영산교
거리 0.8km
시간 20분

소리길 4구간은 길상암에서 영산교까지의 구간으로 홍류동 옛길을 복원하고 다듬어서 계곡을 따라 완만하게 걸을 수 있도록 조성한 길입니다. 낙화담을 비롯해 길상암, 물레방아 등 소리길 구간중 가장 경관이 빼어난 구간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국립공원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성된 무장애 탐방로입니다.



05

구간 영산교 ➡ 해인사
거리 1.2km
시간 25분

소리길 5구간은 영산교에서 해인사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해인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성보박물관을 지나 청량한 조릿대 소리를 따라 걷다보면 어느덧 천년고찰 해인사에 다다릅니다. 해인사의 우수한 역사문화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팔만대장경을 통해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이런 곳입니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곳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의 비전은 '자연보전과 고객만족을 실현하는 세계 일류의 공원관리 전문기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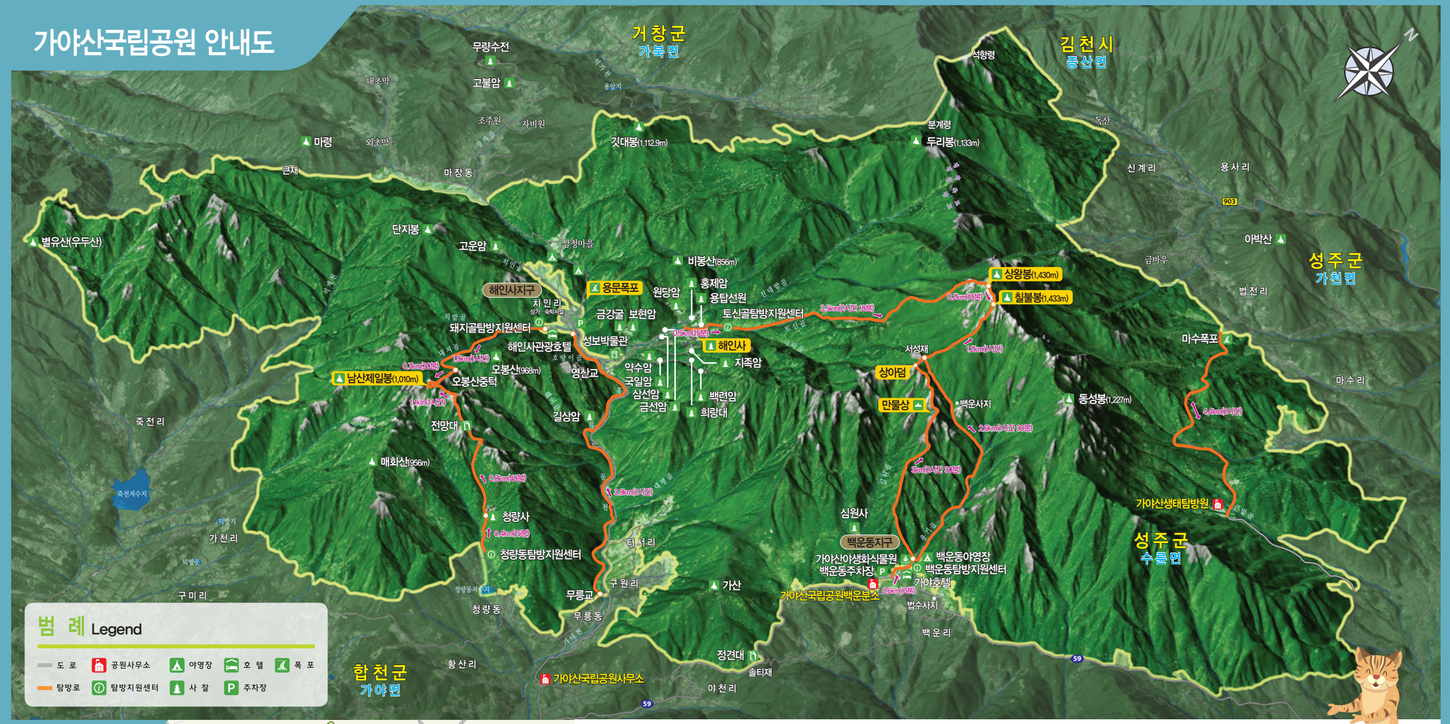
가야산은 1972년 10월 13일 9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76.256㎢로 소백산맥의 지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봉우리로는 상왕봉(1,430m), 칠불봉(1,433m), 남산제일봉(1,010m) 등이 있으며, 그 사이로 아름다운 홍류동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야산 중턱에 위치한 법보종찰 해인사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장경판전과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이 자리하고 있으며 홍류동 계곡과 더불어 가야산의 자랑입니다.

해설프로그램 참가 안내

참가방법 홈페이지 : www.knps.or.kr
또는 전화예약 : 055) 930~8000, 8003
참여시간 연중(상세 일정 및 소요시간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참가인원 1회당 10~30명 내외

국립공원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경남 합천군 가야면 가야산로 1200(마천리 886)
Tel. 055) 930-8000 / gaya.knps.or.kr

가야산국립공원 안내도



주변안내



가야산국립공원 Gayasan National Park

가야산국립공원은 일명 우두산이라고 불리는 상왕봉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합천군, 거창군과 경상북도 성주군 사이에 위치한 면적 76.256km^{2}의 국립공원이다. 이 산은 1972년 10월 13일 9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을 비롯하여 마애불입상, 용문폭포, 홍류동계곡 등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명승고적을 간직하고 있다. 가야산은 백두대간의 한 지맥으로, 산 자체의 격조와 품위는 예로부터 "산행은 천하에 절승하고 지덕은 해동에서 제일이다." 라고 하는데서도 증명되며 오대산(1,563m), 소백산(1,439m)과 더불어 전화(戰禍)를 입지 않은 곳으로 삼재(화재, 수재, 풍재)가 들지 않는 곳이라고 했다.

주요 탐방코스 Some selected tour courses

코스 (Courses)	거리 (Distance)	시간 (Walking hours)
청량동탐방지원센터 ↔ 남산제일봉 Cheongnyangdong Information Center ↔ Namsanjeilbong	2.3km	1:55
해인사관광호텔 ↔ 남산제일봉 Haeinsa tourism Hotel ↔ Namsanjeilbong	2.6km	1:30
해인사 ↔ 중봉 ↔ 가야산정상(상왕봉) Haeinsa ↔ Jungbong ↔ Gayasan(Sangwangbong)	4km	2:10
백운동탐방지원센터 ↔ 서성재 ↔ 가야산정상(상왕봉) Baegundong Information Center ↔ Seoseongjae ↔ Gayasan(Sangwangbong)	4.3km	2:30
백운동탐방지원센터 ↔ 만물상 ↔ 서성재 Baegundong Information Center ↔ Manmulsang ↔ Seoseongjae	3km	2:30
무릉교 ↔ 영산교(소리길 구간 중 공원구역 내 일부 구간) Mureunggyo ↔ Yeongsangyo	3.9km	2:00

※ 가야산소리길은 대장경 테마파크에서 해인사까지 총 구간 7.2km입니다.

만물상



바위가 만가지 물체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하여 만물상이라 불리우는 금강산의 만물상에서 따올만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국립공원지정후 38년 만에 개설되어 일반인에게 공개된 경관지역이다.

※ 2020년부터 탐방로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어 방문 전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을 통한 사전예약이 필요합니다.

칠불봉



가야산 칠불봉(1,433m)은 경북 성주군의 속하며, 가야산 일원에서는 가장 높은 봉우리이다. 일대의 상왕봉, 동성봉 등과 함께 정상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수려한 경치와 다양하고 웅장한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최근 개방된 만물상코스를 비롯한 여러 등산코스와 함께 맑고 풍부한 수량을 지닌 계곡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주변에 다양한 볼거리가 많아 탐방객들이 즐겨찾는 명소로도 손꼽히고 있으며, 정견모주의 아들인 금관가야의 시조 김수로왕과 얽힌 전설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남산제일봉





남산제일봉(1,010m)은 가야산의 정남쪽으로 홍류동계곡을 사이에 두고 솟아있는 봉우리이다. 특히, 청량사에서 남산제일봉으로 이어지는 탐방코스는 남부지방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예로부터 매화산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으나, 매화산은 남산제일봉의 남쪽에 있는 산을 지칭하며, 남산제일봉은 이름 그대로 해인사의 남쪽에 솟은 제일봉을 일컫는다.

해인사에서는 남산제일봉의 형상이 불꽃처럼 생겨 화재를 불러일으키는 산이라고 전해오고 있어, 해마다 단오가 되면 남산제일봉이 품고 있는 화기를 누르기 위해 소금 단지를 묻는 행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청건 이후 7번이나 화재를 당했지만 남산제일봉에 소금을 묻은 이후에는 화재를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

상왕봉 01

산세가 웅장하고 수려한 것으로 유명한 자연경관으로 정상인 상왕봉을 비롯하여 두리봉, 깃대봉, 칠불봉 등 빼어난 경관자원을 지닌 봉우리와 홍류동계곡, 백운동계곡이 잘 조화되어 가치를 한층 더한다.

특히 상왕봉은 소의 머리처럼 생겼고 오랜 옛날부터 산정에서 행해졌던 산신제의 공물을 소에 바치고 신성시 해왔다고 하여 우두봉이라고 불리우며 상왕봉의 '상왕'은 (열반경)에서 모든 부처를 말하는 것으로 불교에서 유래한 것이라고도 한다.



용문폭포 02

홍류동계곡 상류지역에 위치하며, 높이 약 5m, 폭 3m, 폭호의 길이 약 20m, 폭 10m의 타원형태로서 가야산지역을 대표하는 자연경관이다.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류인 편마암으로 구성된 절리가 특징한 방향으로 발달하며, 유로와 폭포 면의 방향은 서로 90°에 가깝게 교차하는 두 절리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해인사 서쪽 약 2km 지점에 있는 이 폭포는 옛날부터 용이 살고 있다하여 지금도 가뭄이 심할때는 기우제를 지내면 효력을 본다고 전해지고 있다.

홍류동계곡 & 농산정

가야산국립공원 입구에서 해인사에 이르는 약 4km의 계곡으로 주변의 경관이 뛰어난 지역이다. '홍류동'이란 이름은 봄에는 꽃으로 가을에는 단풍으로 계곡에 붉은 색채가 비쳐 흐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계곡의 울창한 숲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산골짜기를 흘러내리는 물소리가 운치를 더해준다. 계곡 입구 주변에는 농산정이 분포하고 있는데, 홍류동 계곡의 바위에 새겨져 있는 최치원이 지은 한시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해인사 일원



법보종찰 해인사는 불보종찰 통도사, 승보종찰 송광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삼보종찰의 하나이다. 구원리의 무릉교, 농산정과 자필암, 음풍뢰, 취적봉, 광풍뢰, 제월담, 분옥폭, 완재암 등이 분포하며, 홍류동계곡과 함께 절경을 이룬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2교구 본사이며 국보 제32호인 팔만대장경 국보 제52호인 장경판전을 비롯한 수많은 문화재를 간직한 옛 선현의 지혜의 보고이다. 또한, 원당암을 비롯하여 홍제암, 용탑선원, 삼선암, 약수암, 국일암, 지족암, 희랑대, 청량사 등의 부속암자가 있으며, 노송 · 장송 등이 우거져 남부의 명승지로 알려져 있다.

해인사 장경판전

장경판전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8만여 장의 대장경판을 보관하고 있는 건물로 해인사에 남아있는 건물 중 가장 오래되었다. 산 속 깊은 곳에 분포하여 임진왜란에도 피해를 입지 않아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다라장 법보전 동서사간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장경판을 보관하는 건물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장식 요소는 두지 않았으며, 통풍을 위하여 창의 크기를 서로 다르게 하고 각 칸마다 창을 내었다. 또한 안쪽 흙바닥 속에 숯과 횟가루 소금을 모래와 함께 차례로 넣음으로써 습도를 조절하도록 하였다. 자연의 조건을 이용하여 설계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점 등으로 인해 대장경판을 지금까지 잘 보존할 수 있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장경판전은 15세기 건축물로서 세계 유일의 대장경판 보관용 건물이며 1996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안전한 탐방을 위한 노하우

- 탐방 전 기상정보, 탐방코스, 탐방시간 등을 잘 알고 해가 지기 전에 하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웁시다.
- 혼자 탐방하는 것보다 단체로 탐방하는 것이 안전하며, 나의 건강과 체력에 알맞은 탐방을 합시다.
- 탐방시에는 반드시 식수 및 비상식량을 준비하여야 하며, 특히 계절에 맞는 각종 장비(방한의류, 우의, 방한장갑, 아이젠, 손전등)를 준비합시다.
- 산에서는 취사나 흡연을 절대 할 수 없으며, 인화물질(취사도구 및 라이터 등)을 소지하지 맙시다.
- 출입금지구역 및 지정 탐방로가 아닌 곳으로 다니지 맙시다.



긴급신고 및 구조요청 안내



산불, 불법행위(취사, 상행위), 조난 등 긴급신고, 구조요청 편의를 위하여 탐방로상 매 250 ~ 500m 간격으로 그림과 같은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니 유사시 표지판에 표기된 신고처에 현 위치 번호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상에 표기된 탐방로는 탐방객 이용을 고려한 현황상 탐방로이며 공원계획 재정비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